

600만 소상공인은 힘든데, 소공聯은 2년째 '내홍중'

회장파 vs 반대파 '내부싸움'
배동욱 회장 복귀 후 갈등 점화
배 회장 보완수사에 반대파 '환영'
회장파, 별도로 출범식 등 행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600만 소상공인 관련 대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추가 타격이 불가피한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내부 갈등이 계속되며 갈갈질갈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판 워크숍' 등 논란으로 지난해 배동욱 회장에 대한 탄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의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법원의 탄핵 총회 무효 결정, 이후 지난 5월 배회장의 복귀가 이어지면서 '회장파'와 '반대파'간 갈등이 더욱 거세지며 2년째 격랑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배 회장의 지난해 '중판 워크숍' 의혹에 대해 경찰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배동욱 소공연 회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대위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7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공연 전국광역지역연합회 비대위는 전날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최근 경찰에게 배 회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을 놓고 "공정한 법 집행에 의한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관할 경찰서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데 이어 이틀날인 이날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차 시위를 했다.

지난해 소공연 노동조합은 배 회장을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 7개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여기에 더해 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총 9건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비대위는 "배 회장은 소공연 전국 15개 광역지회장 중 과반수에 이르는 8명을 지난달 모두 교체 완료해 지역연합회 업무를 마비시켰다"면서 "소공연의 근간인 지역조직이 배 회장이 무단임명 한 낙하산 인사로 대거 물갈이 돼 배 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회장파'인 소공인 광역

협의회는 이날 별도로 국회 앞에서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과 소상공인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역협의회 공동대표인 소공연 김용락 경기도 회장은 "최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대체 공휴일법 등 소상공인을 옥죄는 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코로나 충격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마저 과도하게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협의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원 설립 추진 ▲소상공인 회관 건립 ▲소상공인 생계 및 창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말 배동욱 회장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한법 제정 ▲소상공인 전문 연구기관 설립 ▲소공연 예산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18개 분야에 걸친 소상공인 공통과제와 27개의 업종별 정책과제를 정 전 총리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소공연이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는 월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은 26%로 조사됐다.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9%,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27.7%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가족 구성원은 '4인 가구'가 33.8%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2인 가구' 21.2%, '3인 가구' 20.8%로 각각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인 2022년도 최저임금 1만8000원에 대해선 응답자의 91.9%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G화학, '자상한 기업' 선정... 업계 1호

중기부, 6번째 주인공으로 선정
화학 분야 중소기업 경영 지원
신한銀과 1000억 규모 펀드 조성

LG화학이 '자상한기업 2.0'으로 선정되며 화학 분야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화학, 신한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LG화학은 화학 분야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또 동반위와 함께 수준 진단부터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강서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화학, 신한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권철승 중기부 장관,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너지 절감과 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과 안전보건 경영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1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경영자금뿐만 아니라 공동기술개발, 동반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1인당 300만원의 신규인력 채용

장려금으로 우수 인재 확보도 돕는다.

LG화학은 전 세계 화학기업 최초로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국내 화학기업 첫 번째로 탄소중립 2050 성장을 선언하는 등 ESG를 선도하고 있어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2.0'의 6번째 주인공이 됐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폐플라스틱 재활용 나선다

락앤락·투썸플레이스와
'탄소제로 협의체' 구성

CJ대한통운이 락앤락,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앞장선다.

CJ대한통운은 7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본사에서 락앤락,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탄소ZERO 협의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탄소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탄소ZERO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탄소ZERO 협의체를 리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사인 락앤락과 투썸플레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업사이



7일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2021 탄소ZERO 협의체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CJ대한통운 김우진 상무, 락앤락 강민숙 상무, 투썸플레이스 이상우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클링해 물류 현장 및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락앤락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플라스틱을, 투썸플레이스는 매장에서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상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통합영업센터 '원스퀘어' 오픈

브랜드간 협력, 전문성 강화

교원그룹이 영업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기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각 브랜드별 영업점을 융합한 통합영업센터 '교원 원스퀘어'를 인천 송도에 열었다.

7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교원 원스퀘어'는 구몬, 빨간펜, 웰스 등 각 사업 브랜드별로 운영하던 영업점을 하나로 합친 통합영업센터다. 브랜드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영업 조직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우선, 교육 및 생활문화사업별로 나뉜 방문판매사원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공동 영업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한다.

고객 관리 노하우 및 영업 성공사례를 자유롭게 나눔으로써 판매사원 개개인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고객에게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 보유기업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 보유기업을 7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 보유기업 모집 분야는 상반기와 동일한 스마트 미러,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의 스마트 기술 보

유기업 및 모바일 기반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인 스마트 오더 보유 기업이다.

관련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모집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해당 기술이 올해 상반기 기술 풀(Pool)에 포함된 경우엔 따로 모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원희룡 "586집권세력과 제일 잘 싸울 수 있어"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 /사진 뉴시스
▲ 최재형 "정치 참여 할 생각"... 사실상 대선 출마

▲ 與 주자 컷오프 11일 오후 발표... 내달 7일 순회경선 시작
▲ 김부겸, EU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기후변화 대응 논의



▲ 국정원, 인혁당 등 27개 과거사 사건 피해자 등에 '사과 서한'
▲ 이준석 "여성가족부 성과 평가해야... 오히려 젠더갈등 크게 늘어" /사진 뉴시스